

벤츠 'CLS·더 뉴 C클래스' 출시... 수입차 1위 굳힌다

신형 디젤엔진 탑재 배출가스 저감 대대적 업그레이드로 전부분 개선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굳힌 메르세데스-벤츠가 올 하반기 신형 모델을 대거 출시한다. 벤츠는 신형 CLS에 이어 C클래스를 출시하며 판매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4도어 쿠페 신형 CLS의 판매에 이어 올 하반기 C클래스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두 차량 모두 벤츠의 신형 디젤 엔진을 탑재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과 주행 성능 개선 등을 최적화했다.

지난 2005년 국내 처음 출시된 CLS는 쿠페 특유의 우아한 실루엣이 강조된 모델로 지난해까지 약 1만4000대가 판매됐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CLS400d 4매틱 파워트레인에는 새로 개발된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됐다.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마틴 솔츠 부사장, 다임러AG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디젤 부문 수석연구위원 요헨 베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이 국내 출시되는 더 뉴 C클래스를 소개하고 있다.

71.4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에 소요되는 시간은 5.0초다.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더 뉴 C클래스'에는 새로운 직렬 4기통 디젤·가솔린 엔진,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출시와 함께 가장 먼저 선보이는 더 뉴 C 220 d에 탑재된 최신 디젤 엔진은 최적의 효율성과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최고 출력 194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의 C클래스는 전 세계적으로 950만여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글로벌 120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은 지난 16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더 뉴 C클래스 코리아 안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이번에 선보이는 차량은 C클래스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모델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며 "디자인, 성능, 상품성 등 모든 부분에서 개선된 만큼 한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C클래스의 외관은 새로운 형태의 전면 범퍼와 헤드램프, 테일램프로 고급스러움이 더해졌다. 아방가르드 모델에는 신규 전면 범퍼 디자인이 적용돼 역동성을 높였으며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는 강렬한 더 뉴 C클래스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특히 테일램프에는 LED 광섬유 디자인이 적용돼 차체를 더욱 넓어 보이도록 했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에 적용된 디젤 엔

진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맞춰 개발됐다. 요헨 베크 다임러AG 어드밴스드 엔지니어링 디젤 부문 수석연구위원은 "신형 엔진 개발은 4가지 목표를 갖고 진행됐다. 이 가운데 특히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가장 엄격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단순히 기준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최고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뉴 C클래스에 적용된 새로운 디젤 엔진은 최신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도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15% 크다"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더 뉴 C 220 d를 우선적으로 출시한다. 내년 초부터는 가솔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AMG 모델을 비롯해 쿠페, 카브리올레 버전을 순차적으로 출시해 C-클래스 패밀리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더 뉴 C 220 d 모델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55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전, 미래형 MG로 에너지신사업 선도

(마이크로그리드)

'KEPCO Open MG 프로젝트' 추진 기존 기술에 디지털 접목한 개방형

한국전력은 '미래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개발하기 위한 'KEPCO Open M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MG는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지 않고도 소규모 지역이 자급자족하도록 구성된 독립형 전력망을 뜻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MG에 에너지저장장치(LESS)와 블럭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에너지 커뮤니티'다.

이전까지의 MG는 소규모 태양광(PV)과 풍력(WT), 에너지저장장치(ESS) 위주로 구성된 안정적 전력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연료전지 등이 발전원으로 추가, 신재생만으로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다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P2G P2G(Power to Gas)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다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 메탄을 생산하는 기술을 활용, 남은 전력을 수소로 전환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연료전지 등을 통해



지난 2016년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나주시 농공단지 모습. /나주시

전기에너지로 다시 바꿔낼 수 있다. 기존 MG보다 에너지저장율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다.

또 해당 프로젝트는 국제표준기술이 적용돼 있어 서로간 연결이 쉽고 운영효율성이 향상된다. MG간에 전기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계통연결 병목현상이 해소,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전측은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MW) 규모의 에너지저장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성해갈 계획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움직이는 3대 트렌드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전은 신재생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을 이끄는 에너지플랫폼 공급자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중국 금융불안, 장기화될 수도”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美 금리인상 기조 지속돼
취약국 중심 반복 가능성 ↑

올해 들어 신중국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채권에 대한 가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등 금융불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와 함께 앞으로도 신중국 금융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대외리스크에 대한 위험 노출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잠재 리스크가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국 금융불안의 확산 가능성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중국 금융불안의 특징'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미국의 연이은 정책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로 신중국의 외국인 자본 유출이 높아진 가운데 신중국의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 정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중국 금융시장은 주식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경색되는 모습이다. 지난 2~10월 중 MSCI 신중국 지수는 23.4%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기준 신중국 채권 가산금리는 103.8bp(bp=0.01% 포인트) 상승했고 CDS프리미엄(부도 위험 전가 수수료)도 91.4bp 올랐다.

신중국 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외환시장에서도 뚜렷해졌다. 신중국 환율(JP모간 신중국 통화 지수)은 지난 2월 대비 14.4% 하락했다. 지난 201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로 신중국에 유입된 해외자본의 유출압력을 강화시키면서 신중국의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교역 및 투자 감소,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이 많은 신중국 성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신중국 금융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차례 금융불안 때와 비교하면 금융지표 변동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자) 때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미 예견돼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작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실물과 금융경제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은 점도 신중국 금융발안의 확산을 제한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신중국 금융불안은 국가별로 편차가 컸다.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큰 반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안정적이었다. 성장률이 낮거나 재정·경상 적자가 만성적이고 외채 비중이 높은 취약국가는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다.

이번 신중국 금융불안은 강도는 약하지만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며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과거에는 9개월 이내에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자)' 때는 2개월, 2015년 중국 경기 둔화 때는 9개월가량 금융불안이 지속됐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와 함께 취약국 중심의 신중국 금융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될 경우 테이퍼 탠트럼, 중국 경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은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현실화될 수 있어 부정적 파급 영향이 상당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교역 및 투자 감소,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이 많은 신중국 성장에 부

/김희주 기자 hj90@

서울시 '6대 관광특구' 빅데이터 분석... 상권 활성화 도와

창업·폐업률과 소비패턴 분석

서울시는 '6대 관광특구'의 창업·폐업률 변화, 내·외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관광재단은 19일 오전 '소상공인지원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우리마음 가게 성권서비스'가 보유한 내·외국인 유동인구, 신용카드 기반 추정매출액 등 관광특구 현황분석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지원한다. 서울관광재단은 이를 활용해 관광객 방문이 많은 6대 관광특구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 /연합뉴스

관광효과를 연구한다. 양 재단은 관광특구의 소비패턴, 요일·계절별 관광객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관광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서울은 여행객 방문 비중이 높고 관광

활동 다변화로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으로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서울시 우리마음가게 상권분석서비스"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상권을 분석해 소상공인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양 재단 간의 협력을 통해 기관의 상생을 도모하고, 그 효과가 관광업계와 서울시민에게 미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